

중부일보

2017년 03월 10일 (금)
20면 지역

DMZ 서식 동·식물 ‘생태도감’ 만든다

道, 연천·김포·파주順 조사

경기도가 DMZ철책 속에 숨어있는 생태자원을 찾아 나선다.

9월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1억6천만 원을 투입해 DMZ 및 평화누리길 일원을 대상으로 ‘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내 DMZ일원의 각종 생태자원을 파악,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희귀 동식물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색 있고 구체적인 보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DMZ 일원 및 평화누리길 12구간 일원 191km 구간에 살고 있는 식물 및 동물군 등이다.

올해 연천을 시작으로 2018년 김포·고양, 2019년에는 파주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조사를 마친 2020년에는 생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도감’을 만들게 된다.

조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식물 및 동물군에 대한 위치(GPS 기록 등), 명칭, 일시 등을 명기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 구간별 동·식물별로 구분해 추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할 방침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DMZ 일원 희귀 동식물 보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또 DMZ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위한 ‘포켓용 로드맵’을 만들어 DMZ 생태자원에 대한 흥미와 정보제공, 호기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일원 생태조사는 지구상에 유일한 DMZ를 경기도가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17.2 X 9.2 cm

경기신문

2017년 03월 10일 (금)
03면 종합

道, 2020년까지 ‘DMZ 생태도감’ 만든다

연천·파주·고양·김포 191km
식물·동물군 데이터베이스화

경기도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사업’을 추진, 경기도만의 특색 있고 구체적인 보호·관리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이번 사업에 1억6천만 원을 투입, 도내 DMZ일원의 생태자원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DMZ 일원 및 평화누리길 12구간’ 일원(총 191km)에 살고 있는 식물 및 동물군 등에 대한 생태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먼저 2017년 연천을 시작으로 2018년 김포·고양, 2019년 파주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조사를 마친 2020년에는 생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도감’을 만들게 된다.

특히 조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식물 및 동물군에 대한 위치(GPS 기록 등), 명칭, 일시 등을 명기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구간별 동·식물별로 구분해 추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DMZ일원 희귀 동식물 보호 및 관리방안을 찾고 파괴된 생태지역을 복원·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동시에 DMZ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평화누리길 이용객들 위한 ‘포켓용 로드맵’을 만들어 DMZ 생태자원에 대한 흥미와 정보제공, 호기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구축된 생물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DMZ일원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는데도 활용하려 한다.

이재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DMZ일원 생태조사는 지구상에 유일한 DMZ를 경기도가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생태자원을 올바르게 보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발간한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DMZ일원에는 멸종위기 1급 산양, 멸종위기 2급 삿대벌레, 포유류(43종), 양서·파충류(34종), 조류(266종), 육상곤충(2,189종), 담수어류(136종), 저서무척추동물(351종), 식물(1,854종) 등 7개 분야에 총 4,873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17.8 X 11.0 cm

DMZ 자연환경·생태자원 도, 2020년께 '도감' 발간 연천서 13일 첫조사·설명회

경기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비무장 지대(DMZ) 일원의 생태환경을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4년간 1억6천만원을 투입, DMZ와 '평화누리길' 일원(총 191km)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조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 생태 도감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생태조사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구체적인 보호와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는 올해 연천을 시작으로 내년 김포·고양, 2019년 파주지역을 차례로 조사한 뒤 2020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도감을 펴낼 예정이다.

생태도감이 완성되면 이를 기초로 DMZ 일원 희귀 동식물 보호와 생태 파괴지역 복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도는 구축한 생물정보를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 첫 생태 조사가 있을 연천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정부/김규식·최재훈기자
cijh@kyeongin.com